The Bond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2. 26

2월 금통위 Review: K-Pop, K-뷰티 그리고 K-점도표

채권 우혜영
whydele@ls-sec.co.kr

향후 6개월 후(3분기)에도 정책금리는 계속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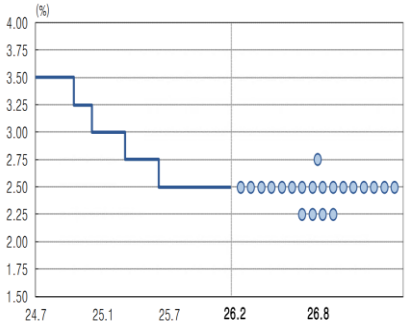
2026년 2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2.50%로 동결되었다. 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만장일치 결정이다. 동결 결정과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 또한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다. 다만 기념비적인 정책 변화가 있었다. 향후 통화정책 전망 시계를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확장한 'K-점도표'를 새롭게 공개한 것이다. 19명의 연준 위원(지역 연은 총재 12명, 이사 7명)들이 각자 1개의 점을 찍는 연준의 점도표와 달리 K-점도표는 금통위원당 3개의 점을 찍는다. 3개의 점을 찍는 것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확률 분포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월 점도표에 따르면 동결 지속(2.50%) 16개, 인상(2.75%) 1개, 인하(2.25%)에 4개의 점이 찍혔다. 인상이 언급된 요인으로는 이번에 물가 전망이 상향 조정된 점, 환율 및 유가 변동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우려스러운 점 등이다. 반면 인하가 언급된 요인으로는 경기가 회복세에 있지만 K자형 회복이라 부문간 회복 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장 지원이 필요한 점, 6개월 뒤에는 환율·주택시장 등 금융상황이 지금보다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가 최근 국고채 금리 수준이 다소 과도하다 설명하면서 금리 정책 관련 불확실성만큼은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를 참고해 조정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K-점도표가 통화정책 전망 불확실성을 소폭이나마 완화시킬지는 앞으로 단기물 금리의 추가 하향 안정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정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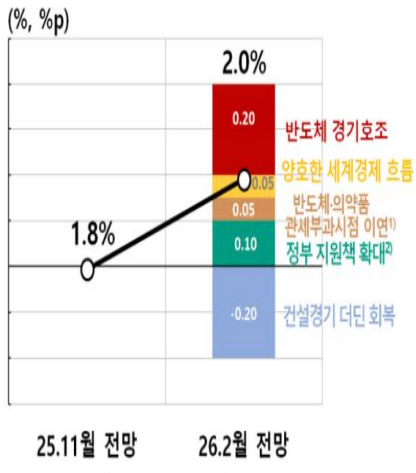
올해 GDP 경제성장률 전망은 2.0%로 +0.2%p 상향조정 되었다. 당초 예상보다 더딘 건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 양호한 세계 경제, 특정 품목 관세 부과 시점 이연, 정부의 소비·투자 지원 정책 등 덕분이다. 반면 내년 전망치는 내수 회복 흐름 및 글로벌 경기 개선,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 등에 기인해 수출 증가 지속을 예상하면서도 1.8%로 -0.1%p 하향되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올해 헤드라인과 근원 전망이 각각 2.2%, 2.1%로 모두 +0.1%p씩 상향되었다. 마이너스 GDP 갭 국면 지속, IT-비IT 부문간 성장 양극화 등 제한적인 수요측 압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전자기기 가격 인상 압력과 보험료·대학등록금 등의 인상 움직임 등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 압력 때문이다. 내년 전망은 헤드라인과 모두 2.0%로 유지됐다.

그림1 **한국판 점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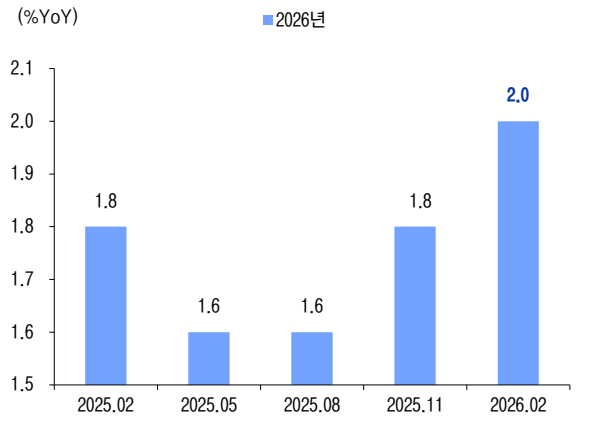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성장률 전망 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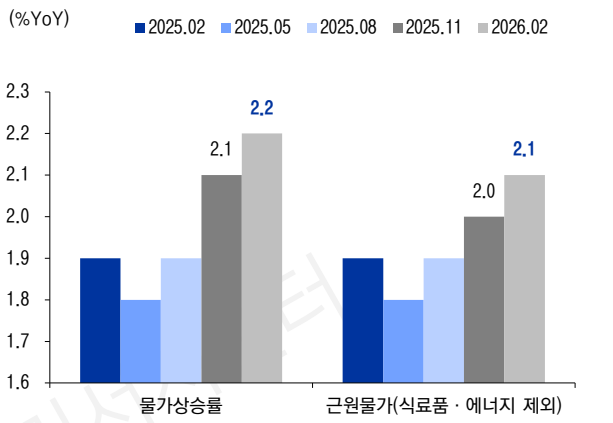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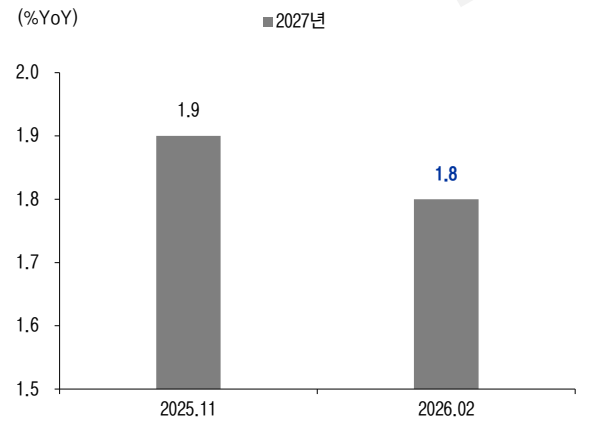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2026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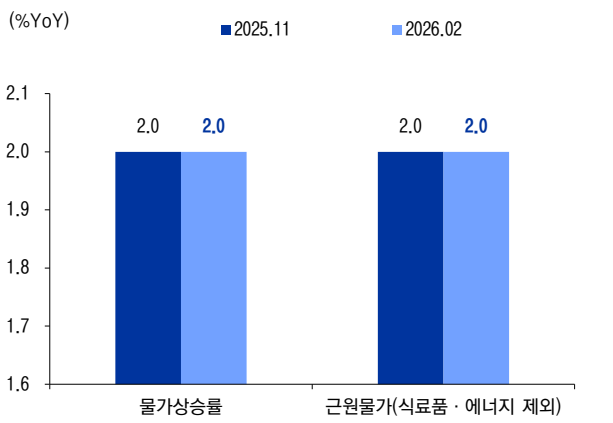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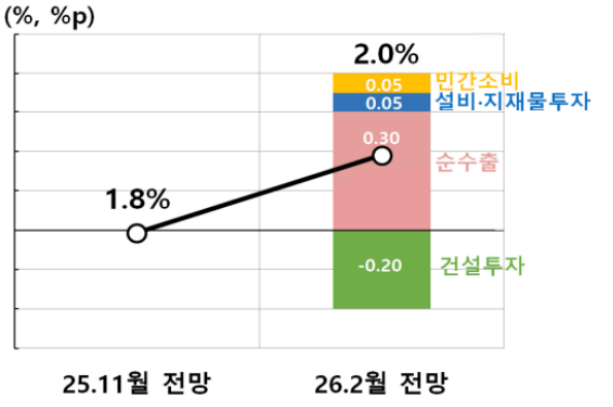
그림6 2027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2026년 성장 전망 조정(요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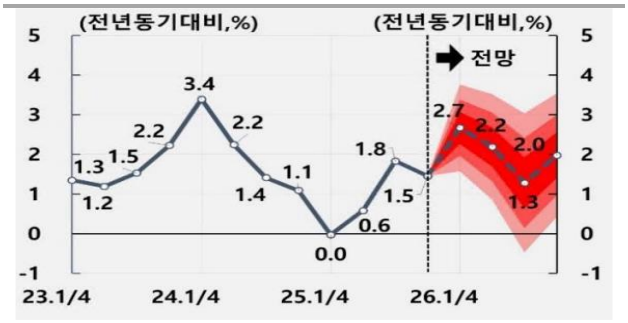
그림8 2026년 성장 전망 조정(지출부문별)



주1: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 이연(2026년 3분기 → 2027년 1분기)
주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26년 6월까지), 국민성장펀드 투자처 선정, 공공기관 투자 증대, 시설자금 지원 확대 등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분기별 GDP 성장률 전망(%YoY)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e)			
	1/4	2/4	3/4	4/4	1/4	2/4	3/4	4/4
GDP성장률	0.0	0.6	1.8	1.5	2.7	2.2	1.3	2.0
(전기대비)	-0.2	0.7	1.3	-0.3	0.9	0.3	0.4	0.4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시나리오별 반도체 수출 물량 전제

(전년동기대비, %)	2025				2026e)			
	1/4	2/4	3/4	4/4	1/4	2/4	3/4	4/4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2.1	2.0	2.4	2.1	2.2	2.3	2.1
• 근원물가1)	1.9	2.0	1.7	2.0	2.1	2.0	2.3	2.1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시나리오별 반도체 수출 물량 전제

	주요 내용1)
기본	▶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세 완만히 둔화 (25년 16% → 26년e 10% 내외 → 27년e 8% 내외)
낙관	▶ 25년(16%)에 근접하는 수출물량 증가세 지속
비관	▶ 금년중 6% 내외, 내년중 3% 내외로 증가세 빠르게 둔화

GDP 성장률

(%, %p)	2025	2026e)	2027e)
기본 전망	1.0	2.0	1.8
낙관 시나리오		+0.2	+0.3
비관 시나리오		-0.2	-0.3

소비자물가 상승률

(%, %p)	2025	2026e)	2027e)
기본 전망	2.1	2.2	2.0
낙관 시나리오		+0.1	+0.1
비관 시나리오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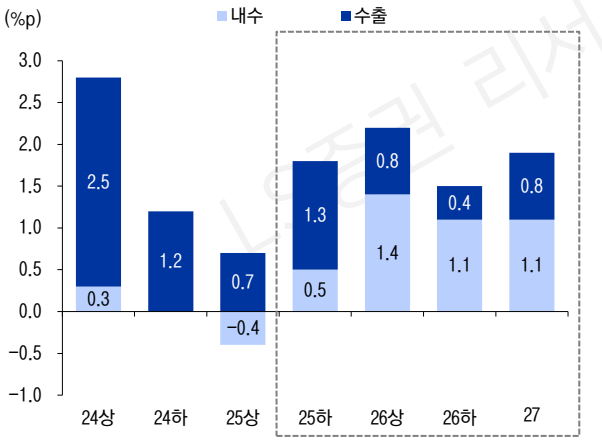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주요 리스크 요인

	상방리스크
성장	▪반도체 경기 상승세 추가 확대 ▪국내외 정부의 경기부양책 강화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
물가	▪지정학적 불안 심화 ▪고환율 지속
	하방리스크
성장	▪美관세정책 불확실성 추가 증대 ▪국제금융시장 불안AI 과잉투자 및 주요국 재정 우려 ▪비IT부문 부진 심화
물가	▪글로벌 원유 공급과잉 심화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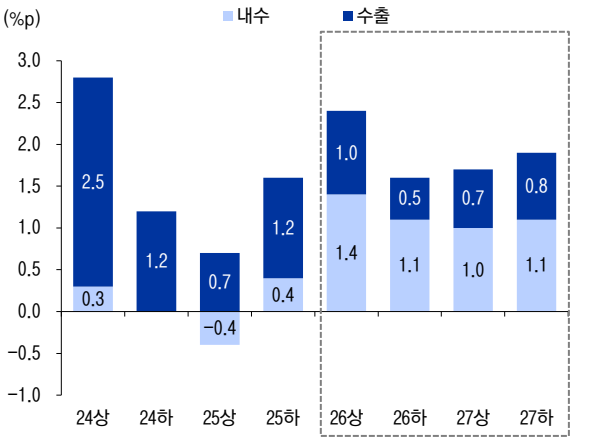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내수·수출 순성장 기여도(2025년 11월)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내수·수출 순성장 기여도(2026년 2월)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2026년 1월과 2월 통화정책방향문구**

	2026년 1월 통화정책방향	2026년 2월 통화정책방향
금리결정	• 기준금리: 2.50%로 동결(만장일치) •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	• 기준금리: 2.50%로 동결(만장일치) •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AI 관련 투자 지속**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물가 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임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주요국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다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의 영향 등으로 강세로 전환.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 전망으로 상승세를 지속 •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변화, 글로벌 통상환경,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 받을 것	•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투자 확대,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임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위험회피심리가 다소 강화되었음. 장기 국채금리가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으며 상승하다가 하락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엔화 강세,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판결 등으로 약세를 나타냈음.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을 반영하여 대체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나 AI 과잉투자 및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음 •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AI 투자 및 지정학적 위험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 받을 것
국내경제	• **국내경제**는 건설 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개선 흐름을 지속**하였음 •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음 •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도 소비 회복세 지속, 건설투자 부진 완화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 •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 확대, 예상보다 양호한 주요국의 성장 흐름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	•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였음 •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음 • 앞으로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겠으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도 **반도체 경기 호조 및 양호한 세계경제 성장세**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0%**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러한 성장 경로에는 **반도체 경기 및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미 관세정책, 지정학적 위험** 등과 관련한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
물가	• 국내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에도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12월 중 2.3%로 소폭 낮아졌으며,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음.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6%로 전월 수준을 유지 •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으나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금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치(각각 2.1%,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물가 경로는 환율 및 국제 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에 영향 받을 것	• 물가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1월 중 2.0%로 낮아졌으며, 근원 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음.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 (일반인)은 2.6%로 전월 수준을 유지 • 금년 소비자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 압력으로 지난해 11월 전망치(각각 2.1%, 2.0%)를 소폭 상회하는 2.2% 및 2.1%로 전망. 향후 물가 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 받을 것
금융시장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거주자 해외투자 지속 등으로 다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음. 국고채금리는 금리인하 기대 약화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다소 낮아졌으며,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로 큰 폭 상승하였음 •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증가 규모 축소, 기타 대출 순상환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으나, **수도권 주택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음**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외국인 주식매도 등 수급 부담과 엔화 등 주변국 통화 움직임에 영향 받으며 등락하다가 최근 상당 폭 하락하였음. 주가는 주요 업종 실적호조 전망, 자본시장 제도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글로벌 증시 움직임에 영향 받아 변동성은 확대. 국고채금리는 금리인하 기대 약화, 머니무브 등에 따른 수급 부담으로 상당 폭 상승하였다가 일부 되돌려졌음 •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 지속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은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
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 국내 경제는 **성장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경로에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물가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음 •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 •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 • 국내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소폭 높아지겠지만 목표수준 근처에서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은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조건부 금리 전망 개선 방안 및 2026년 2월 조건부 금리 전망

1. 개선 배경

- 한국은행은 2022.10월부터 '금융통화위원의 3개월내 금리전망'을 제시한 이후 내부적으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통해 금리전망의 시계 확장과 제시방식 명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음
- 지난해에는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통화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여이에 대한 외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음
- Pilot test 결과와 시장·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부 금리전망의 시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장하고 제시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2.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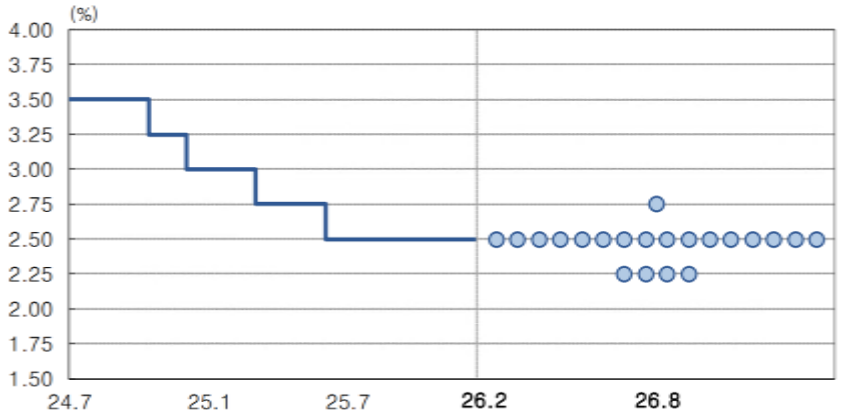
□ 제시위원: 금통위원 전원
□ 전망시계: 6개월 후
□ 제시주기: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시(2·5·8·11월, 연 4회)
□ 제시방식: 금통위원은 각자의 6개월 후 금리전망을 3개의 점으로 제시

- 금통위원이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을 기초로 각자의 전망 반영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금리 수준을 의미
- 각 금통위원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금리 전망의 확률분포를 반영하여 3개의점을 제시. 예를 들어, 점 2개와 1개로 서로 다른 금리수준에 나누어 제시할수있으며, 점 3개를 모두 동일한 금리수준에 제시하거나 점 3개를 각각 다른 금리수준에 제시할 수도 있음

3. 기대효과

- 새로운 금리전망은 3개의 점으로 베이스라인과 상·하방 리스크를 확률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시계도 6개월로 확장하여 중장기 수익률 곡선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

그림15 **금통위원의 6 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자료: 한국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금통위 Q&A 주요 내용

통화정책 고려 요인

- 부동산 우려 줄고 환율 우려 줄었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음
- 국내 수급 요인은 노력을 통해 조정하고자 했지만 환율은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미국 내 AI 주식 영향, 대법원 판결, 日 정부의 재정정책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높음. 작년 11~12월은 국내 요인에 의해 드라이브됐지만 올해 1~2월은 국내요인뿐만 아니라 해외요인에 의해 많이 움직임
- 한은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에 불을 붙이기 위한 유동성 공급을 안하겠다는 것이지 부동산 시장이 금방 안정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음. 금융안정 고려가 많이 사라진 것 아님
- 금통위원 입장에서는 최소 몇 개월 동안은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상당기간 지속될 것
- 다행스럽게 물가는 이 시점에서 괜찮아 보이지만 유가나 환율 영향 받을 수 있음. 향후 통화정책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물가를 기본적으로 보고, 금융안정 보고, 성장 보면서 조절할 것. 큰 변화가 없는 상황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 관련

-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3년째 지속함. 6개월 전망을 위해서는 분기 전망이 필요했음
- 분기 전망 관련 시장과의 소통이 아쉬웠었음. 이제는 조건부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고, 분기 전망 자리 잡았다 생각해서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 제시하게 된 것(1년은 다른 나라의 3년, 6개월은 다른 나라의 1년이라 생각). 한은 총재일 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한 점도 부정할 수 없음
- 3개 점을 찍게 된 이유는 특정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익명성을 위해 확률 분포 보기 위해 3개로 늘림
- 6개월 후 기준금리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조건부 전망을 의미. 이번에 동결 16개, 인상 1개, 인하 4개 찍음
- 3개월 포워드가이던스는 금통위원마다 의견 물어보고 취합. 반면 이제는 다같이 논의 후 익명 하에 점을 찍음
- 점 찍기 전 나온 내용을 종합해 인하/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요인을 살펴보면
  2.25%: 회복세 있지만, K자형 회복이므로 부문간 회복 속도 차이가 크므로 성장 지원 필요, 6개월 뒤에는 환율·주택시장 금융상황이 지금보다는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 등
  2.75%: 2.2%로 물가상승률 전망 상향, 환율 및 유가 변동 때문에 물가 상방 리스크 우려스러움 등
- 모든 것은 조건부 전망임. 향후 몇 개월 간 이행과정에서 3개월 힌트도 줄 것이나 몇 개월 지나면 안 줄 것
- 각 위원에게 3개월 전망 의견 물어보진 않았지만 논의 내용에 따르면, 6개월 전망과 달리 금리 인상 의견 부재
- 한은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금통위원들이 의견의 제시한 것이라 보면 됨
- 점 대부분이 2.5%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조건부이나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에는 적어도 6개월 사이에 인상하거나 인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적은 것

성장률 전망 및 GDP 갭 관련

- 올해 2.0%는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 내년 1.8%이 고령화 등을 고려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
- 작년 연간 경제성장률 1.0%이었고 전에도 높진 않았기 때문에 GDP갭의 경우 올해는 작은 수준이지만 마이너스될 것으로 전망. GDP 갭 닫히는 시점은 2027년 중하반 이후로 전망
- IT 제조업의 연간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작년 0.6%p, 올해 0.7%p, 내년 0.5%p

부동산 시장 및 거시건전성 강화 정책

- 장기적 안정화로 이어지려면, 여러 정책, 수요 컨트롤하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공급정책, 세제,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등이 필요. 일관적인 정책이 장기간 집행될 필요성
- 한국은행은 부동산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나서 그것이 우리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축소해야 하며,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은 한국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원달러 환율 관련

-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 레벨에서 등락 시 펀더멘털 고려할 때 많이 벗어나 있어 예외적으로 과도하다 언급. 작년 말은 달러화 움직임과 관계없이 우리 원화만 절하되는 것이 우려스러웠던 것
- 현재 1,430원 하회하는 레벨. 아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레벨 관련 언급은 부적절할 것
- 안심할 때 아니지만, 지난 연말에 있었던 수급 요인에 의한 변화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

주식시장

- 주가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 최근 주가 상승은 정부의 자본시장개선 노력, 반도체·원전·증권 등 실적 개선 뒷받침 되면서 상승. 저평가에서 벗어나 레벨-업된 것은 긍정적
- 전세계적으로 주가 상승 속도는 유례없이 빠르게 올라간 상황인만큼 대내외 충격 발생시 변동성 확대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계속 할 것

시장금리 평가

-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3.2%까지 올랐다가 등락 반복.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 60bp 이상에 육박
- 이러한 수준에 대해 금통위원들은 동결기가 아닌 인상기에 가까이 갔다고 생각. 내부에서는 스프레드가 과도하다 판단. 금통위원들 생각보다는 높은 것 같음
- 금리 상승에는, 동결 기조 이어지다 하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주식시장 활성화에 다른 자금 이동(머니무브), 추경 관련 논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금리 정책 관련 불확실성만큼은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를 참고해 시장 조정 있길 희망. 이런 것들이 시계를 넓힌 장점
- 단순매입 정책 필요성에 관해서는 과도한 수준 지속되면 통화정책 전달경로 확대 위해 배제하진 않겠지만,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 실행했고, 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 수요 확대 등의 상황 점검하며 머니무브 움직임 등을 보면 필요시 실행할 것. 다만 오늘 필요 여부 언급은 부적절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우혜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